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중요방도

김 홍 일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내세우는 원칙적립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신년사》 2014년 1월 1일 단행본 18~19페이지)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을 빨리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협조관계는 여러 나라들이 경제발전에 필요한 없거나 부족한 인적 및 물적자원들을 마련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유무상통하는 사업 또는 그러한 목적을 원만히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을 갖추어나가는 사업이다.

경제협조관계의 확대발전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중시하는 분야의 하나로 되고있다. 나라들마다 해당시기 도달한 생산력발전의 객관적수준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들을 갖추고있는 정도, 자원리용의 효율성수준과 그 개발 및 리용방향 등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으므로 유무상통하며 힘을 합쳐 호상 유익한 일을 하는것은 민족경제의 빠른 발전과 나아가서 인류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라의 경제를 하루빨리 세계의 선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 우리의 경제활동무대를 세계적범위로 넓히고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것들을 보다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리익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도들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경제협조대상 나라와 지역을 옹계 규정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대상 지역 또는 나라들을 옹계 정하는것은 경제협조의 성과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경제협조를 위한 대상 지역 또는 나라들을 바로 정해야 협조의 형태와 규모, 방식을 실정에 맞게 합의할수 있고 협조에서 실리를 보장할수 있다.

우선 우리 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세계적인 경제협조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아시아지역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아시아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중시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실정으로 보나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나 경제협조를 통하여 성과를 거둘수 있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우리 나라는 아시아나라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운것만큼 어떤 형태의 경제협조를 진행하든지 자금을 적게 들이면서 내세운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물론 정보통신수단과 수송수단의 발전으로 하여 나라들사이, 기업체들사이의 의사전달시간이 훨씬 단

축되고 인원 및 물자의 움직임에 작용하는 시공간적요인의 영향이 훨씬 적어졌지만 경제협조의 실행에 필요한 사람들과 상품들의 물리적이동은 의연히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무역과 투자분야에서의 협조만 놓고보아도 협상을 위한 여행, 현지료해를 위한 답사, 상품의 최종소비지예로의 수송, 합영이나 합작을 위한 투자재산의 현지에로의 수송 등이 협조의 경제적효과성과 실리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세계에서 제일 큰 대륙으로서 세계인구의 과반수가 살고있으며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는 아시아는 오늘 국제적인 경제협조의 중심지역으로 변화되고있다.

지금 세계의 크고작은 많은 나라들이 아시아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의 확대발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아시아시장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있다. 동북아시아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노동력, 거대한 소비시장, 서아시아의 원유자원, 동남아시아의 가공조립의 효율성 등을 노리고 나라들사이의 아시아시장쟁탈전이 격렬해지고있다.

이것은 우리가 경제협조의 지역과 나라들을 규정함에 있어서 아시아를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돌려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아시아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아시아의 특정한 한두개나라에 편중하는것을 경계하여야 하며 동북아시아를 포함하여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등 아시아의 여러 지역과 나라들로 경제협조의 범위를 가능한껏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안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전망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지금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오세안지역을 포괄하는 세계 거의 모든 지역과 나라들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일심동체가 되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강위력한 정치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과학기술발전을 중시하고 전체 인민이 경제강국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것을 목격하면서 우리 나라와의 경제협조관계확대에 커다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보이고있다.

이것은 우리가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의 대외경제활동무대를 아시아는 물론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나라들로 끊임없이 확대해나갈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아시아시장을 중시하면서도 브라질과 메히꼬를 기본으로 하는 라틴아메리카시장과 남아프리카를 목표로 하는 아프리카시장쟁탈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있는 세계적흐름도 우리가 응당 중시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경제협조의 형태를 다양화하여야 한다.

경제협조의 형태를 다양화하는것은 경제의 여러 부문들에서 유무상통의 범위를 넓혀 우리에게 없거나 부족한것들을 보충할수 있게 하는 동시에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협조과정에 발생할수 있는 우발적인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가능한껏 줄일수 있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고 볼수 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를 지향하는것은 우리에게 없거나 부족한것들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보충하자는데 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특정한 협조형태나 제한

된 협조형태들에만 의존한다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

다른 나라들과 진행하는 협조의 형태를 다양화하면 한가지 형태의 협조에만 의존하는 경우에 생길수 있는 손실의 위험을 다른 형태에서의 이익의 확대로 줄이거나 총체적인 실리를 보장할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게 된다.

경제협조의 형태를 다양화하는데서는 때 형태별에 따르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할당해야 할 요구가 제기된다.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조는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진행되며 자기에게 있거나 남는것을 주고 필요한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로부터 주어진 시기에 가능한 협조자원을 전제로 하여 협조계획을 세우고 실현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협조의 형태를 제한없이 확대해나가기 위하여서는 가능한 자원을 협조형태별로 합리적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경제협조상대의 리해관계를 잘 타진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여야 한다.

나라들사이의 경제협조관계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유무상통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호상성의 원칙에서의 유무상통은 준것만큼 받고 받은것만큼 주는것을 의미하므로 무엇을 얼마나 주고 받는가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리해관계가 일치될것을 요구한다. 협조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자기 가 준것만큼 받지 못할것이라고 타산할 때에는 그러한 협조가 성립되기 어렵게 된다. 우리가 협조관계를 맺으려는 상대방의 리해관계를 잘 타진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는데서 적지 않은 난관이 조성될수 있다.

그러므로 나라들사이의 경제협조에서 계약리행과 관련한 거래업무를 누가 어느만큼 담당하며 그 비용을 어떻게 타산하

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상대방의 리해관계를 정확히 판단하는것이 중요하다.

다른 나라의 기업들로부터 무역관련투자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상대의 리해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나라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그리고 도경제개발구들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대상들이 늘어나고있으며 이 지대를 통한 경제협조를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무역관련투자를 리용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제안에 끌려있는 근본적인 리해관계를 잘 따져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지대하부구조의 개발과 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일정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만든 상품을 다른 나라시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무역관련투자인 경우에 외국투자자들의 실제적인 리해관계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

무역관련투자인 경우에 외국투자자들의 리해관계의 초점은 우리 나라 특수경제지대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원가를 상대적으로 적게 들여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함으로써 리윤을 획득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세우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

우선 주변나라들과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들이 생산한 상품을 판매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 생산한 상품을 주변 나라들이나 그밖의 다른 지역 나라들에 실현하는 경우에 관세장벽문제나 원산지 문제로 인한 영향을 피할수 있게 하여야 특수경제지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가

경쟁력의 강화와 판매리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다.

또한 관세장벽이나 원산지문제로 하여 특수경제지대상품의 다른 나라시장에 대한 판매실현에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다른 나라들이 적용하는것보다 낮은 관세율을 정하여 관세수입도 얻으면서 국내에서의 생산정상화와 인민생활향상에 유익하게 리용하는 방안도 세워야 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적지 않은 외화를 주고 수입하던 상품들을 국내에서 특수경제지대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해결한다면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우리 나라의 수출입무역에서도 실리를 보장할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제지대에서 생산할 상품을 바로 선정하고 그에 대한 국내의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는것과 함께 우리의 리익을 보장하면서도 외국투자자들이 받아들일수 있도록 관세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는것이 성과의 중요한 전제로 된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경제협조의 방식을 바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추진하고있는 경제협조의 방식은 다무적협조방식과 쌍무적협조방식, 지역적협조방식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다무적협조방식은 세계적인 범위에서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이 국제경제협정들을 맺고 리용하는 방식이며 쌍무적방식은 특정한 2개 나라가 서로 협정을 맺고 서로의 리해관계에 맞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며 지역적협조방식은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경제적유리성이 보장되는 조건을 가지고있는 같은 지역나라들사이에 협정을 맺고 경제협조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은 세계무역기구

와 같은 다무적기구들에 의거하던데로부터 쌍무적협조와 지역적협조를 중시하는데로 나가고있다.

지난 시기에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은 세계무역기구나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무적경제기구들에 망라되어 거기에서 자기 나라의 경제적리해관계를 실현하는것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세계적범위에서 나라들사이의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룬다는 명분을 띠고 조직된 국제경제기구들은 성원국들사이의 리해관계의 차이와 발전수준에서의 불일치, 토의문제의 설정과 합의에서의 불공정성의 심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나라들의 지배주의적책동으로 하여 약소국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이 짙어지면서 자기의 역할을 거의나 수행할수 없게 되었다.

한편 브릭스나라들을 포함한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다무적협상을 위한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경제적지위가 강화되는데 맞게 협상력과 대항력을 높이고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나라들의 전횡에 맞서나감으로써 제국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 리해관계의 충돌이 표면화되고 다무적협상기구들의 협상과정이 계속 지연되고있으며 형식상 결정된 문제들조차 그 실현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있다.

이로부터 지금 많은 나라들은 다무적협조방식중시로부터 쌍무적 또는 지역적협조방식중시로 정책을 바꾸고있다.

아시아나라들에서 지역적협조방식의 적극적리용이 중시되고 일련의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많은 아시아나라들은 이미 세계무역구에 가입하였지만 그를 통한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의 리익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역적경제협조에 큰 힘을 기울이고있다.

남아시아나라들이 남아시아지역협조연합이라는 지역협조기구에 의거하여 경제협조에 적극 참가하고있는것, 메콩강류역

의 나라들이 앞으로 10년간 준지역적경제 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려고 하고있다.

서아시아지역에서도 주로 아랍나라들이 주도하는 아랍만국가협조리사회, 아랍경제동맹위원회 그리고 유엔의 아래기관으로 나온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 등의 지역경제기구들에 의해 지역나라들사이 무역에서의 관세철폐, 대외공동관세의 설정,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협조, 석유생산과

판매의 균형보장 등 공동의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경제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적방도들을 모색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